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전면 중단 촉구

군산시의회,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서동수 의원 “어족자원 말살” 정부 규탄

군산지역을 비롯해 전북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해EZZ 골재채취단지 지정 반대와 관련 군산시의회가 나서 제대로 힘을 실었다.

25일 시의회는 제21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서동수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1년 동안 어청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를 6,425만㎥ 채취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또다시 5년간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해 EZZ 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정부의 이윤배반적인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관과 양묘장을 갇혀있는 행위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켜야 할 정부가 가격이 저렴하고 손

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사업을 용인하는 이윤배반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등 어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에는 아무런 대안·대책도 없이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동수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골재채취 단지지정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골재채취업체들로 구성된 (주)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이 또다시 5년간 3,58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고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다”며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수산자원을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어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정부는 (주)해양기초자원



25일 시의회는 제21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자로 나선 서동수 의원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서해 EZZ 골재채취단지 신규 지정을 즉각 중단하고 황폐화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희망 청년 도시' 구축 나선다

구직활동 지원 비용 최대 6개월 180만원까지 지원 식품클러스터 등 익산형 청년 일자리 개발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지원 확대를 통해 '희망 청년 도시'를 구축한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활동과 취업 후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 대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개월 동안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체크카드 발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청년취업 드림카드'는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학원수강료와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관련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산업을 연계한 익산형 청년 일자리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익산시는 노사발전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원광대와 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해 청년들의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

고 관련 업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7개 분야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집중 추진할 11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지역 중소기업과 문화관광재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만18세 이상, 49세 미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교육도 제공된다.

3곳의 직업훈련기관에서 6개월 동안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습 교육을 이수한 뒤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4명이 선발됐다.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 동안 각 35만 원씩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침실'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은 정현율 시장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청년들의 활동 공간과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구직 청년들에게 취업상담과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 일자리 정보 등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취업 후에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희망기움통장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현율 시장은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업과 취업 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원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원광대학교병원 우수기관 선정

활동 보고회서 '동상' 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2018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활동 보고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181개 권역 및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본부 행사에서 2018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기관에 원광대병원이 선정됐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2018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활동 보고회 행사에서 포스터를 발표하기도 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익산, 군산, 남원, 정읍이 포함 된 전북권역 6개 참

여병원의 권역중심병원으로 선정돼 감염병 유행과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의료관련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33개 권역중심병원과 114개의 참여병원을 선정,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술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해 왔다.

윤권하 원광대병원장은 “전북의 권역중심병원으로써 감염병 관리활동의 노하우를 참여병원들과 공유하여 감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발생시 효과적인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전북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멜론 대만 수출 본격화

10월까지 일본·홍콩 등 140여톤

익산 네트멜론이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멜론 6.4톤이 대만으로 수출됐으며 오는 10월까지 일본, 대만, 홍콩 등에 140여톤이 수출될 예정이다.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네트멜론은 3~5월 정식 후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출하하는 품목으로 재배면적은 50ha, 1720톤 가량이 생산되고 있다. 매년 '네트멜론' 브랜드로 140톤 이상이 대만, 일본, 홍콩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고온기 멜론 재배는 하우스 온

도가 높아지고 토양 내 유해 병원균의 밀도가 증가해 '급성 시들음증'으로 고사하는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에 유동관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로 온도를 낮추어 줘야 하고 차광막, 다겹보온커튼을 활용해 햇볕이 강한 이후 시간에 적극적으로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농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해 매년 시실원에 농가에게 2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퇴비차, 클로렐라 배양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익산=정원천 기자

군산시의회, 제219회 1차 정례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경우)가 제219회 1차 정례회에서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간담회와 2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1차 정례회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각 분야별로 시민복지, 건강, 지역경제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려며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각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 위원은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안건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현안사업

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실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과 정지수·지해춘·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과 정지수·지해춘·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과 정지수·지해춘·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